

放射線 安全  
管理과 利用

危險을

돈으로

사지 말라



韓國原子力産業會議

李大熙

放射線의 管理, 방사선의 안전취급에 대한 이야기의 모임에서였다.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방사선의 피폭線量이 비교적 많다는 것이 화제의 초점이 되었다. 피폭선량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의논이 한창 일 후, 어느 사람이 「이와 같은 職種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危險手當을 주면 되지 않나」라고 發言하였다. 여러가지 討論을 한 끝이었으므로 그럭저럭 結論的인 의견과 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 모임에 참가한 사람의 大部分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되어버렸다.

이상한 기분이 되어버린 것은 당연하다. 방사선 관리라는 문제와 「手當」이라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 좀더 확실히 말하자면 次元이 다른 문제이다. 이것을 혼동한 것이 의논이 시원하지 못했던 結末이 된 원인이 있다. 「위험수당」에 대해서 발언한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承知하고 문제를 提起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場所에 함께 있던 사람은 누구라도 그 點을 正面으로 지적하지 않았음에 얼마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방사선 관리는, 本質的으로는 技術의 문제이다. 이에 反해서 「手當」이라는 것은 노동 문제, 勞使관계의 문제이며, 소위 기술의 문제는 아니다. 기술이라는 딱딱한 문제의 의논이 한창일 때 갑작스럽게 「手當」이라는 金錢의 화제, 軟한 문제가 날아들어온 것이다. 약간 생각해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하나 本質的으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A君은, 노동조합의 委員長이다. A君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수는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직장의 방사선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參與하며 종업원을 방사선의 위험에서 지키는 것을 노동자代表로서 자기의 重點的인 일을 하고 싶다. A君은 위원장취임의 인사로서 이와같이 發言하였다.

그래서 우선 組合員의 의견이라든가 要望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나온 의견이라든가 희망은 十人十色, 그 범주도 넓고 또한 各人各색이었다. 의견을 내놓은 대부분의 組合

員은 表現의 차는 있었으나 하나의 공통점은 방사선에 대한 不安感이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간단치 않다. 교육등을 포함해서 一朝一夕에 해결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A君의 委員長 在任中에서 앞날이 내다보일 예상은 우선은 없을 것이다.

또 하나, 組合員의 대부분이 要望한 것이 있다. 그것은, 特別手當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위험수당을 요구해도 우스운 일은 아닐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새로운 手當을 요구하고 이를 얻게되는 것은 實質的인 賃金의 인상이 되기도 한다. 종업원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當面의 목표로 해서 씨름을 하자. 委員長인 A君은 이렇게 決心하였다.

危險手當의 獲得이라는 A君의 方針은 많은 組合員의 支持를 얻었다. 때마침, 회사는 방사선 작업에 따른 새로운 시설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설의 운전이 시작되면 새로운 방사선의 作業이 加해진다. 노동의 내용 변경이므로 옳게 말하자면 당연히 勞使間의 계약의 再檢討가 필요하게 된다. 組合活動의 面에서도 好機이다.

賃金を 포함해서 노동 조건을 多少라도 向上시킨다는 것은 組合, 그보다도 社會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A君, 위험에 대한 手當을 獲得한다는 것은 반드시 방사선 안전의 문제에 關連되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할 것이다. 實質賃金이 올라가는데 물을 끼얹은 것같은 發言이라고 해서 당신은 怒하실지 모른다. 그러나 책임있는 立場에 있는 이상 第三者의 의견도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노동자, 즉 組合이 노동의 과정에서 받는 방사선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는 방사선 관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필요 또한 唯一의 方法이다. A君이 정말로 방사선 안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이 點에 焦點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험수당의 獲得을 목표로 하는 組合活動도 이와같은 관점에서 전망하고 또한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위험수당이란 위

험을 돈으로 살 수는 없지 않을까요. 당사자인 會社側과 勞動組合側에서는 다같이 말할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手當의 具體的인 內容은 돈이며, 이것이 노동에 대한 보수인 이상 위험과 돈의 교환이라는 인상을 씻을 수 없다.

그것보다도 문제는 그것이 正式的인 勞使合意에서 이루어진 手當이라는 點이다. 주는 것이니까 우선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아니다. 또 名目上은 위험수당이나 실제상으로는 勞使교섭의 과정에서 생긴 賃金인상의 편의적 명칭이라면 방사선 관리에 대한 勞使雙方의 인식不足, 또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같이 들릴 것이다.

위험手當을 내는 것에 대해서 勞使의 合意에 따라 使用者側, 즉 會社側이 難物로서 취급하던 방사선下 노동문제가 「一段落 짓는다」라는 인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노동자側 즉 組合側에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방사선 관리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一段落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일단락 되었다는 기분은 방사선관리에서는 마이너스이다.

A君, 당신의 熱意와 고집을 세운다면 위험수당은 獲得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크게 볼 때 당신이 한 일은 당신의 뜻에 反해서 당신 직장의 방사선관리, 組合員의 방사선 安全에서 마이너스의 作用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고 싶어했을 첫번째의 일이다. 이와같은 것은 우선 머리에 번뜩 튀어 나옴지 모르나 냉정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勞動環境의 改善은,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 使用者에 부과된 의무이며 責任이다. A君은, 平時에도 책상에 놓여 있는 勞動法の 冊속에서 一貫된 정신이며, 법률에서도 노동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배려가 들어있다. 돈을 위한 해결이 노동환경의 眞實의 개선·향상을 방해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은 몇 개의 과거의 歷史가 말해주고 있다.

危險을 돈과 바꾸지 말라. 이것은 결코 히스테리칼한 귀찮은 忠告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험과 바꾸자면 완전한 安全對策이 되

면서도 노동환경의 향상이라야만 할 것이다.

A君에서 새로운 手當의 요구와 獲得의 活動은 보는 눈으로서는 잘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賃金투쟁은 組合으로서의 손에 익은 것이다. 언제나 하는 手法으로 하면 되겠지. 그러나, 방사선판리의 문제는 약간 어려울 것이다. 우선 工夫를 한 다음에 덤벼들어야 할 것이다. 바쁜 A君이 주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방사선下에서 노동한다는 새로운 문제와 씨름을 하는 이상, 그 程度의 苦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좀더, 솔직히 말을 하게 해주면, 방사선판리의 문제를 賃金투쟁의 道具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賃金問題만으로서만 組合員의 의사를 통일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의적 수단으로서 돈의

문제와 결부시킬 때는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들의 자유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方便이며 노동환경의 개선·向上의 문제에 대해서의 이야기의 結着이 된 다음에서의 이야기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가령, 회사측의 책임자, 사용자의 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한 교섭과 해결의 책임을 맡았다고 하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은 돈으로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은 손쉬우나 돈은 필요하지 않으니 절대로 방사선을 피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면 괴로운 것이다—라는 것이다. A君, 당신도 같은 立場에서 생각해 보면 어떠한가.

위험을 돈으로 사지 말라. 이 참된 뜻은 누구보다도 노동자인 A君…… 당신이 가장 잘 알 것이다.

## 原子力의 躍進에 貢獻하는

# 原子力用

### 高純度化學藥品·工業藥品

#### ◆ 同位元素

- 硼素同位元素
- 리튬同位元素

#### ◆ 硼素二次製品

- PWR Chemical Shim用

#### ● PWR ICRS用

- 汚染處理用

#### ◆ 高純度 化學藥品

- 燃料再處理用
- 燃料轉換用
- 燃料 成型加工業

#### ◆ 再處理用 工業藥品

#### ◆ 放射能 除染劑

- 放射性 廢棄物 洗濯用
- 實驗器具 除染

#### ◆ 機械工具·切削工具

#### ◆ 測定工具·電動工具

# 宝星商社

서울시 중구 입정동 175-1

전화: 261-3308